

대한수의학회(회장 成在基)는 1957년 7월 전국의 수의학계와 가축위생연구소(현 수의과학연구소) 연구관 등 수의학회 창립을 찬동하는 수의사 87명이 부산 송도 소재 중앙가축위생연구소에 모여 한영우소장을 임시의장에 선출하고 학회의 명칭을 대한수의학회로 제정한 후 초대 회장에 김용필박사를, 부회장은 이규명박사와 이

학회창립 후의 학술활동은 창립년도인 1957년을 제외하고 매년 춘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1977년에는 대한수의학회내에 수의임상, 가축위생, 군진수의, 가금질병학의 분과학회를 두어 각 분과별로 학술활동과 발표를 하였으나 현재 이들 분과학회는 수의학회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학회를 만들어 독립하였다.

1978년 이후 수의학회는 학술발표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국제학술교류를 목적으로 춘계 학술대회를 한번 더 추가하여 학술발표대회를 연 2회로 늘렸다. 춘계학술대회는 심포지엄 형식으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 각국의 저명한 학자를 초빙하여 특강형식으로 수의학분야의 학술교류와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근래에 이르러서 연 1회 개최하는 춘계학술심포지엄은 최소한 3개국 이상의 외국 학자들을 초빙하여 수의학 각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가짐으로써 우리 수의학회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각 회원의 학술활동은 물론 정보교환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57년 부산서 창립 ... 정회원 8백30명

대한수의학회

1957년 부산 송도에서 수의사 87명이 발기하여 창립된 대한수의학회는 현재 정회원 8백30명으로 매년 정기 학술대회를 열고 있으며 61년부터는 학회지를 발간하여 지금까지 통권 80호에 1천2백5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학술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오는 7월16일 한국마사회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학회지에 논문 1천여편 발표

한편 학회지는 학회창립 4년만인 1961년 6월에 대한수의학회지란 명칭으로 창간호가 발행된 후 1962년부터 연 2회 발행하여 오다가 1989년(제29권)부터 연 4회의 계간지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학술원고의 폭주로 격월간행을 희망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1996년 4월 현재(36권 1호) 통권 80호의 지령에 이르렀고 게재된 논문 총 편수는 1천2백50여편이다.

창립 당시 87명이던 회원수는 현재 정회원이 8백30명에 이르고 있으며, 학회의 업무량 증가로 1989년부터 부회장을 3명으로 하는 한편 총무위원 외에 학술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학술위원장의 직제를

택주박사를, 그리고 10명의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19명의 평의원과 감사를 선출하는 창립총회를 함으로써 탄생을 보게 되었다.

대한수의학회의 학술활동을 보면 학회가 설립되기 3년 전인 1954년 10월에 대한수의사회가 주최한 학술대회를 제1회로 간주한다는 창립총회 결의로써 이미 학회 창립 이전부터 학술활동을 시작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6.25로 인하여 학술대회가 계속되지 못하던 중 학회창립을 맞게 되었다. 학회가 창립된 이래 회장단의 임기는 초대회장만 4년으로 하고, 61년 제2대 회장단부터 2년으로 하여 제19대 현 회장에 이르고 있다.



成在基

(대한수의학회 회장)

새로 두어 학술지 발간과 학술행사를 권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5년 10월부터는 부회장을 5명으로 늘려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게 하였다. 의결기구로서 평의원 50명을 두고 있으며 학술위원장 아래 26명의 각 분야별 학술위원을 두고 있다. 외국과의 수의학술교류를 위해서 1981년에 일본 수의학회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1983년에는 당시 자유중국(현대만) 수의학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방문과 학술지의 상호 교환 등을 하고 있다.

일본 수의학회와 자매결연

대한수의학회는 우리나라 수의학분야에서는 모체가 되는 학회이며 수의학분야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세부 학술분야별로는 수의학해부학, 수의조직학, 수의 발생학, 수의생리학, 수의화학, 수의약리학, 수의미생물학, 수의면역학, 수의 병리학, 수의기생충학, 수의공중보건학, 수의독성학 등의 기초학문분야와 수의 내과학, 수의외과학, 수의산과학, 수의 방사선학, 수의임상병리학 및 야생동물학, 어병학 등 수의임상 분야의 학술 전반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국책연구사업의 참여도 활발하고 순수 학문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국민의 치료 예방면에서도 수의학회의 공헌도는 필수불가결한 학술분야라 할 수 있다.

근래에 국가경제발전에 힘입어 국민들의 취향이 각종 애완동물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구미 선진국 못지않게 애완동물이 보급되리라 보며 현재도 많은 수의 각종 애완동물이 인간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다.

한편 대한수의학회는 금년도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오는 7월 16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첨단기법을 이용한 돼지 질병 및 예방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3개국의 관계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내학자들과 최신 학술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서울서 7월 국제학술심포지엄

이번 심포지엄의 개최 목적은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및 오제스키병(Aujeszky's disease : pseudorabies)이 현재 국내 양돈업에 있어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단, 예방 및 역학조사에 의한 퇴치기술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서 얻을 고급 선진정보와 국내에서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양축기들의 소득향상 및 국민 보건차원의 건전한 식육생산에 기여코자 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축산물의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일반이 최선책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중 질병 예방 방역비 등은 수의사가 개입되어야만 이를 수 있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세계적 추이를 파악하여 국내 양돈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심포지엄의 초청 연사로는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① Dr. David Thawley (Epidemiology of pseudorabies infection), ② Dr. Tom Molitor (PRRSV and immune modulation), ③ Dr. Peter Bahnson (Pig-MON and herd health management), 일본 학자로는 일본국 국립동물보건원의 ④ Dr. Yosuke Murakami (Characterization of PRRS viruses isolated in Japan and responses of pigs), 캐나다 학자로는 캐

나다 동물질병연구소의 ⑤ Dr. Hyunju Cho (Seroprevalence of PRRS virus in the Canada)를 초청하였고 국내 학자로는 수의과학연구소의 ⑥ 류영수 박사 (Utilization of PRRS recombinant protein for a diagnosis), ⑦ 송재영 박사 (Recombinant vaccine for pseudorabies control) 등 7명이다.

이번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얻어지는 효과는 현재 세계 선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수출입 자유화 정책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의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의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산업동물의 질병예방 방역비 등을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 심포지엄에서 다루는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암태지에서는 임신 후 사산율이 20~30% 정도이며, 분만한 돼지중 1~2마리가 포유기때 죽어 새끼돼지의 손실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아이오와주에서만 1년에 이 질병으로 약 80억원의 손실을 입힐 정도로 피해가 많은 질병이다. 이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을 예방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어 우리나라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인 수출입 개방 압력에 대처하는 한편 국내 양돈산업 발전에도 활용코자 한다.

앞으로도 학회에서는 매년 이와 같은 국제학술대회를 다양하게 범국제적인 학술대회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타 유사 국내학회간에도 상호 학술 교류를 하여 우리나라 수의학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ST**